

경주 초등 교사들, '경계선 지능' 아동 돕는 현장 밀착형 교수법 배운다

이로운넷=강진구 기자 | 승인 2026.06.12 11:07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교원 60명 대상 맞춤형 교육 마련

인자·사회성 발달 등 실무 중심 전략 전수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지역 내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느린학습자의 이해와 지원전략' 교육을 진행했다./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지능지수(IQ) 71~84 사이에 속해 학업과 대인관계에서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 아동)'들을 위해 지역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관내 초등학교 교직원 60여 명을 초청해 이들의 교실 적응을 돕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느린 학습자의 이해와 지원 전략'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렸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선 교사들이 아동들의 인지적·정서적 고충을 명확히 인지하고 실질적인 지도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에서는 학교와 가정에서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 유도 방안을 비롯해 또래 관계 개선을 위한 사회성 훈련 기법, 학업 의지를 북돋우는 심리적 접근법 등을 다뤘다.

교육에 참여한 교사들은 다채로운 실제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높은 몰입도를 보였다.

박재홍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교실 안에서 느린 학습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올바르게 소통하는 것이 아이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이끄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교육이 교육 현장의 포용성을 한층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로UNET=강진구 기자 dr.kang@eroun.net